보는대로 듯는대로 생각나는대로 ━ 忙中閑人

◇無題錄◇

「오늘은듯는대로나 하나쓰시지요」하고엇던친구가 명령을한다 들려는대로 쓰자면한이업지만은 그래도무슨 건질만한재료를 어떠보자니까 덥허놋코쓰기도 어려운것이다。

◇

행여나무슨 조흔소리가 들려나하고귀담아 들으니까 아닌게아니라 된소리 안된소리가 들리기는 무척들린다。

甲 그친구는살이포동포동쪗데그려

乙 쎄다귀만남도록여윈사람도잇겟지

丙 가는사람오로엇재서살이 쎄기도하고 살이여위기도 할고?

丁 로형들이지금년한을연구하는수작이오? 밥잘먹고잘자고 일잘하고 재미잇게살아가면살이포동포동쎄는법이고밥도못먹고 잠도못자고 일도못하고 재미잇게 못살아가면쎄다귀가보히도록여위는법이지요

◇

잘먹자면 잘먹을도리를 하여야하고 잘자자면잘잘도리、잘살자면 잘살도리를 하여야할터이니 문데는그「도리」에잇군。 쌀이업네、나무가업네 옷이업네、불쓰시개가업네 니쓰시개가업배하는왼갓속바가지는도문데는돈업다는말이나맛찬가지로군

◇

시내수하뎡(水下町)사는하평(下平)이와생뎡뎡(櫻井町)사는황뎐(荒田)이는술병、약병동빈병팔아먹는장사로유명하고황금뎡(黃金町)사는금본(金本)이와생정뎡(櫻井町)사는우뎐(右田)이는간장통된장통빈통팔아먹는 장사로유명한데 이빈병장사와 빈통장사가벌이 어울려서도박을하다가경찰에 잡혓다는 소문이돌린다

◇

『병』과『통』은비여도『주머니』는찻는모양이다。 말은안밥갓지만은중국(中國)사람들은옥어지、풍색리 장사를하여도주머니속에는 조선은행(朝鮮銀行)지전이들어잇고 일본사람들은 빈병비통가치 알맹이업는쇽쟁이장사를하여도품속에는 노름밋천이 착실히잇는모양이다。

◇

말이 낫스니말이지만은 조선사람은 엿장사를하고 집장사를하고 회류장농 조개장농장사를하고 금반지 은반지장사를하고금시게백금시게장사를하여도 주머니속에는 동양척식회사(東拓)소칠수가 아니면 식산은행(殖銀) 채용증서를 비롯하야 던당표가남아잇다。

◇

『근하신년』! 하고 새해인사를하는 소위 년하장이 금년에는 모다 작년보다 칠활(七割)이나 줄엇다고한다。 리유는독자가 마음대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니깐 그만두기로한다。

◇穀齋 許百鍊氏筆

法網에걸닌是非曲直 黑白이曚朧한玉石의群衆

━이놈이속혓서요나는애매하외다━리혼을식혀주오 집행을하여주오

新年劈頭、開廷된法廷

◇裁判所 경성디방법원에서는 그동안새해를 맛게하여주시오하는 여러가지가 모다사사시건 동원오후네시반부터 서긔사와서긔향법원원당이하 각판사와서긔동이출근하야금년최유의 사무를비롯하엿는데 그한편동법원 인민공시(人民控訴)에는 재판소가 어서빨리사무를 시작하기를 몹시고대하고 잇섯든듯한사람들이 각각 연필에「내천싸」(川字)를그리고아슴일슥부터다수히모혀들어 매우분주하엿다 이에따라 경성디방법원민사사건접수계(接受係)압헤는 각기손에 소장(訴狀)을든사람들이 서로억개를부비며모혀들어 소장을드리기에여념(餘念)이업섯는데 이가치하야 동일정오령시(零時)까지동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수가 (리혼을하여)주시오는 돈을바다주시오하는 여러가지가 모다 사사시건 동원오후네시까지에는 혹시여건이 접수될모양으로 평일보다 철수건수가 배나넘칠모양이라하고 또한 방원 검사국에도 (검사정이하 각검사와) 검사낭(련예충) 검사청이하 각검사와 동직원들이 일제히 출근하엿고

◇檢事局 또그한편 경성디방법원검사국에는신사국의쉬는동안 새해첫날부터 우편으로모혀든 고소(告訴)장이 지난사일까지삼십이건 또한 재작오일에 우편으로온고소장과 직졉일에 혹은직접집수된 고소상은아즉수리하지도안이엿스나 또이십이건에달할모양입으로새해벽두로접수된고소장이모다오십오건(공소에는 매달평균삼백오십건이라한)에 달하엿는데이러하야재판소(裁判所)로사파세계(娑婆世界)에 「네가올흐니 내가올흐니」하는 악착한싸홈은또다시계속되는모양이더라

條件附로結婚한夫婦 條件이들려離婚

━신년벽두작일에리혼소송으로경성디방법원민사부에제기해로━【빗다른夫婦의빗다른離婚】

신년벽두로 집이라는녀자로부터 사직동(社稷洞)구십팔번디 그남편 송봉섭(宋鳳燮)(二六)과살지못하겟다는 리혼소송이 한건잇스니 그것은시내서대문뎡(西大門町)일뎡목팔십오번디 박금순(朴今順)(二八) 박금순과 송봉섭은 작년삼월에 먼저덩소의 리유를보면 …… 중송봉섭은노름에팔리어작년추에는박금순에게돈백원만달라

丁卯生도가지가지 팔자가사나우닛까 쌀년만다섯명 (二)

━허리가굽지안어모군도못서고 구멍가가내이나집세로들어가━【苦生을단골로體府洞金明培】

나야 새해에 예순하나가되니 뎡묘생(丁卯生)이라고해도 무방하겟습지오마는 생원이서스달스무나흔날이니 뎡묘생이라하기는 억울합지요하잘것업는 이런몸이나 하나라도더먹는것이 맛가우일일시 분명하옵지오마는 차라리 언른 업서지나다하야 죽지못해사는세상을고만맛추엇스면 좃켓습니다하고데부동(體府洞)일백구십번디 김명배(金明培)란로인은 차치가자에게이야기를시작한다

◇

본래제집은 수원(水原)이 상구이옵지오 우리아버지가죽엇슬때에는 논마지기나 톡톡히가려먹엇섯드랍니다마는 내가철들때부터 남의진농사나지어먹다 …… 세월이 차차차차밀어가는동에 못처먹든밧도지기까지 남의차례로도라가고 살수는업서서스불들이가 서울로올려와서가회동(嘉會洞)에집한간을 어더가지고그럭저럭 모군도서고로동도 하여 품팔이나하여왓습지오

◇

… 오늘은 단일전어치를못파러지오 감사롭죽을디경인데 집세는십원식이라고 집주인은불건개나바더노흐면 집세갑으로드려감니다그려하며 코스불이흐르는것을 후하고푸러버린다

◇

자식말슴이오닛가 팔자가사나우려닛가 쌀년만다섯을나허넷을시집보내고 지금열다섯살된 막내년이남어이지오 아들이하나라도잇섯드면 왜이고생을하겟습닛가 쌀년들이도적년이지오 무슨전생의죄가심하기로이 죽을팔자를쓰고 낫는지 모릅지오

將來行樂子孫밋고 三十餘年守節

━남편을여인뒤로자식들의장래만 시운이불행하야맛며느리도과부━【樂契로生計삼는長沙洞朴氏】

당사동 구십사번디는 열간이될락말락한 조고마한초가집이다 이집문패는김상혁(金相赫)이라고붓혓는데 이김상혁이라이는 박씨(朴氏)의외아들이다

◇

박씨는본래경성곤당스골태생으로 가난한집외딸로태여나서 열여덟살에 이김씨집으로시집을왓는데 그때 그남편은 약계(藥契)에출입하야 서울과시골로다니면서 약을팔어 가계를유지하여섯다고한다 부부간금슬이 화합하여 가세는유족치못하나 살림은매우자미이게살나갓섯는데 둘재아가못되여 박씨가스물일곱살이되는 이라는 한창젊엇슬때에 그남편은 사랑하는안해와 철부지두아들을남겨노코 이세상을하직하고말엇다

◇

박씨는 이아기를시작하야「스물닐곱엔가요 얘한 아버지가 (치마자락에 배여달린 서녀살을 손자를 가르치며) 도라가시니 한동이캄캄하여엇찌바를몰랏슴지요 별수이잇겟소 죽은사람은죽어버니하고 애들이나잘길를생각을하여섯구려 감은살어계시지를못하되 애들은무던하지요 들이서잘벌어서 못섭지안케지내가더니 을축년에일고잇섯다

…

박씨는 칠월십이일이 생일에 삼십사오년동안을 오직두아들의장래만밋고 십년이하도다닌다고한다

突然封切된現代的舊劇 「李王職長官爭奪戰」

━時日과俳優 민당관사거직후에귀족내감들 舞臺와場所 리왕직과총독부와궁내성일대━

主役李址鎔、閔丙奭、李夏榮、高羲敬

◇…리왕직당관 민영기(閔泳綺)씨가죽은후후임당관문데가 방금문데로되여잇는데 작년에 순종(純宗)께서승하하옵신후 리왕직규모가 축소됨에따라현차관으로잇는 소뎐(篠田)씨가당관으로되고 차관에조선사람을 입명하리라는소문도 잇섯스나 총독부에서는 조선인관리로의 최고디위이라할만한 당관자리를 폐해버리는것은칭책상압당하지못하다하야 당관은그냥조선사람으로 임명하기로되여

◇…당관자리 쟁탈전은조선인귀족사이에 또문데가되여잇다는데 지금당관자리를 운동하는사람은 순종때의총독되는리지용(李址鎔)백과 전리왕직당관민병석(閔丙奭)자와 중추원고문 리하영(李夏榮)자와전리왕세자부사무관 고희경(高羲敬)백이 가장뚜렷히 나타나서 총독부를 상대로하야맹렬한운동이벌서부터 시작된모양이라는데

◇…유력한방면의 관찰에의지하면 고희경백이자격도잇고또동경에서 궁내성을상대로운동도상당히할듯하다 저번사무관으로잇슬때에 사직할수밧게업시되엿던관계로 가망이적고리하영자는 고종황제재위당시에 배임덕유모를삼이든 내시(內侍)강석호(姜錫鎬)를엄호하여준관계로 그당시에모혼도만허 금력으로운동을하나 성취되기는역시어렵다하며

◇…민병석자도 넷날 윤덕영(尹德榮)유택영(尹澤榮)씨동파가치 세력문데로총독부에감 …

◇쟁탈전의각역배우◇차례로 ◇리지용씨 ◇민병석씨 ◇리하영씨 ◇고희경씨

阿峴里强盜 두명이나타나

오일새벽두시경에 고양군룡강면아현리(高陽郡龍江面阿峴里)삼백삼십번디포목상(布木商)윤 …

高麗共産黨員 李春載潛入說

간도룡정촌(間島龍井村)에잇든 그전동흥학교(東興學校)교원으로잇든리춘재(李春載)(三一)는동흥학교가 폐교가된후로 모스크바사관학교에 드러가졸업하고 고려공산당(高麗共産黨)에가입하야 …

吉林省依蘭道에서 朝鮮農民大募集

━새로히평야를개척키로조선인모집논열마지기에소작료로일원만바더━

延袤數百里의平野를開拓

길림성의란도요하현(吉林省依蘭道饒河縣)의 료력하부근(撓力河附近)과그상류락라하(諾羅河)일대와대칠리성하즉괴륵칭하(大七里星)… 의 일망무제한 평원광야로 오소리강과송화강사이에잇서비옥한토디로 논풀기에 매우조흐나아직까지 개간을못하엿던바 도윤(道尹)과현지사(縣知事)의주선으로 이압흐로개척하기로하야 얼마전부터 조선사람을 만히모집하기로 결뎡하야 규측(規則)을제뎡하고 조선사람으로 농사하려고가는사람에게는 입적(入籍)을하라한후 토디하로가려(하로가리는즉조선토디열마지기)에 돈일원에빌려주되 만일사십오원만내면 영구히소유권을맨드러준다는데 합이빈(哈爾濱)에서는 배를타면 송화강(松花江)으로여들에 동안을 나려간다더라(봉텬)

元山青年會를 群衆이襲擊

━신년벽두에원산청년회관조난 괴물을째고청년회원을부상케━

兩次衝突十餘名負傷

지난오일오전아홉시경에원산부명사(明沙)의문란(紊亂)입으로 청년회측금산동(元山府南山洞)에모힌수이불리하야서로대항하든중소관…

老婆縊死 병을비관후

전북당수군텬천면 장관리(全北長水郡天川面壯板里)황순근(黃順根)의 모친 신치옥(申致玉)(六六)은 지난일일 오전여섯시경에 목을매고죽엇다는데 전긔황치옥은 다시회생치못할 중병에걸리여 수십년동안을두고무수한신고를하든중 그를비관하고 그와가치 목을매고 죽은것이라더라(당수)

妻로서의 나의感想(六)

◇大邱南龍岡町 徐敬愛

婦人欄懸賞當選文 其二

엄이하도수상하야
소스라쳐서니
품속에안기웟든
힌비둘기는
구만리푸른한울노
노피노피……
또다시살을어더
쳐오쳐보니
날어든힌비둘기
의형새되여
삶맛는넷동굴에
나래를처요!

아아 처녀에서 처으로
슬픔과즐거움이숨박굽질하는
이세의행복을기려기라

■언니

나는언니한테엇데 다감사해야 올흘지 모르겟습니다 두고만흔 동모들의 신호초와 공부가온데 서나의가슴을 지혀 자아흔들어 감격의눈물이 흘솟게 한것은오즉언니의편지로보내주신 아름다운 글스귀 뿐이엇습니다 그때는 학교의졸업때나 귀성에 징하못천몸이된나는날노동모들의엽서로 보수십고 학교시며와 가치자미스럽게 뛰놀고 십기도 하지만 입의장성한 처녀의몸인지라엇더케 할수업다가 마음내 경홍을하게되엿스며여려동무들 그중에도 언니외쏫이잇는시구(詩句)를맛자와볼때에 나외마음가운데넘처는감상은엇더라할길이 업습니다 학교운못자엽 사다(방학)지든그쫌빗해서에다는공상에취하여 삶人길가른미래(未來)를속살거려며 가슴을래우든 그때도아마 넷날의 서지기쉬운 괴억으로 변하여버렷다고 생각하니또한 나의에닯운생각은 여복하오릿가

처녀(處女)에서처(妻)로―

힌비둘기에서 파랑새로 아아처녀의써를 마조막으로 보내는슯품과처로서의 첫질을밟는 질거옹을뒤려서 느서지 안호릿가마는나의게는며구나언니외글스귀가잇섯는지라 며한층 가슴에저려는듯 징을금할수가업섯습니다

처녀외마조막 려별은 참으로 슬푸고 가슴아푸든 것이로소이다집안에서는 이구석저구석 에서수근수근하고 혼인날이 하로 이틀가서워지며흰옷입은압니다 빠진 니ㅅ발을드리내며 싱거운 우숨을웃고

「어복이나조흘나고 쏫가튼시절에」하고놀려대며 어머니나언니들은 몸단속세쏫이 하라고당부하실젠 광연히 가슴이울넝거리면서도하로밤비그날이오기를 쏙마음오로 꼽꼽기달려지고 밤마다삶人길에「그이」의얼굴을보앗소이다

마침내기달리든그날……九월三일이왓습니다 나는어되가 엇더케되엿는지 삶人길파가치 악신거리고 뒤숭숭하고 어릿둥한가운데서 어쩌다보니 발서색례는다지냇다하며 나는 칠보단장에화관을쓰고 큰옷을 그냥입은채고요한방에 안자잇게 되엿습니다 그래나어렴풋한 의식가운데앗까 며칭에나와서 하녀들에게보수을바다때를지햇합데

「이것이처녀시절의 마조막이로꼬나……」하는생각이 가슴에 롤니어름엇슴을놋기엿습니다

그래나 이쌔에는 다만막연하게 이런생각이낫슬쁜 이엇습니다마는 그러저럭 하로人날이지나가고 밤의정은창막이 온누리를고요히쉽쌀때 신방에는 절다란초人불이바람人긔도업는데고요히 흔들리고 숨벗이잇습니다 아아 이것이이른바 동방화촉이지요!

신방은 손님용접으로 사랑방에가잇고 나는어머니와 언니들파함께 이초人불이남버이녹신방에이섯습니다 이방은범서책상하나와 조그마한 책장한개로서차지되엿든징과한공부人방이아니엿고 도라보니 번즈르한장롱、의거려、번득거리는경대꼬리고년동에는 내손오로만든 쏫갓이씨여잇스되 거긔에는 봄이켜이지안엇습니다

세계부인 금주회장조선에와

세계부인금주회장(世界婦人禁酒會長)「안나●에●라●고든」녀사는 삼주간예뎡으로 … 조선에오게되리라고합니다

가뎡고문

●●●●●배우를사랑합니다●●●●●

(문) 저는십구세된처녀입니다 지금화창에몸을 면진학생인바 시내에인는엇던 배우를사랑하는중입니다 배우갓흔자탈을사랑하야도 다른사람은욕은안먹을셔요자서히해석하야 주십시요(安城郡K S生)

(답) 학생시대는공부할때이오려에할때가 아닙니다배우가 다그런한것은 아니자마는배우가운데는 정직하고참되이가져온못합니다 이러한덤을드러새상에서는 당신을을치안타할것입니다(기자)

●아●해●못●낫●는●것●이●나●의●죄●임●낫●가●

(문) 몸년만삼십일세된출가한녀자이온데 십삼년전에시집와서사년전에 아희를낫다가 몸달만에죽고서지금 서지아희가업다고이십팔세된 남편의구박합니다이것이 오즉나의죄입가

(답) 아희못낫는것은다만녀자의죄뿐이아닙니다 내외분이다의사진찰을 바더보십시오누구편에원인이잇는지 판명히알수잇습니다(기자)

童劇 薯童(三)

(一幕三場) 李殷相

百濟諸王時代 壇紀二九三三年頃

(서동)
「자인제는또그다음」
「궁궐안에선화공주」
「자다갓처해」
(아희들)
「궁궐안에선화공주」
(두세번더부른다)
(서동)
「참잘들하고두줄다해보」
(아희들)
―서동도함께―
「월성이라신라서울
궁궐안에선화공주」
(서동)
「재주들이참훌륭만하오」―
마동에서 마를석어내며
「자위선또한개식갈라드리지」―
―마를갈라준다―
「자인제는 두줄밧게안남앗는데이것만다하면 열개식 줄테야용」
(아희)
「이건노래배우고마먹고……」
―아희들열광한다―
(서동)
「인제는
「밤이면마장사간」
「다갓처하오」
(아희들)
「밤이면마장사간」
(두세번더부른다)
(서동)
「인제는마지막줄이오」
「둥에업고다라나네」
「아주재미잇서다갓처하오」
(아희들)
「둥에업고다라나네」
(두세번더부른다)
(서동)
「인제그두줄다해보 아주잘들잘하오」
(아희들)
「밤이면마장사가
둥에업고다라나네」
(서동)
「네줄다한번해보오 그러고마들먹소용」
(아희들)
―서동도함께―
「월성이라신라서울
궁궐안에선화공주
밤이면마장사가
둥에업고다라나네」
(서동)―마를갈라주며―
「참재주들잇소 래일모래할것업시 언제던지 이감나무밋흘로만와요 그러고 이노래를외우고 젊人거리마다 다니면서 동무들에게도 배화주고…… 하면마는날마다 그저 줄테니용!」
(아희들)
「그래그럼점심먹고 또와도조하?」
(서동)
「암아희들더만히데려와요」
―아희들 퇴장하고 두서넛남아잇다―

○二等 元山第一公普 韓泰星(二)

小作人金첨지(四)

‖短篇小說‖

◇三千瀨 金南柱

懸賞一等當選小說

그는이것을 열어볼새 하엿다 그러나두려웟다 그대로 버려두고갈셔하엿다 그러나 앗가웟섯다 그는길에서보는돌건은 그대로버려두고가는 성미이엇섯다 오늘은 그러하기실혓다 더구나이것이 그놈들의것입에 틀림업습에랴 그는 이지갑을바지말에쏫다 두번세번 그것을집고싸서 뒤에쏫잣다 두손을피여서그우를놀느고 제집으로 향하엿다

그는자리에누엇다날어날수업섯다 발서사흠이되엿다 몸에서 몸열이난다헛소리를가끔한다

―이놈이놈최가人놈네가나를잡어먹자는니엽는그돈갑허라 그돈――

―어데로도마을가?일본안이라 대국이라도 차저갈것이다

―이놈죽일놈 내따서지 매려고――

이런외마대소리가가을집흔밤에 「집첨지」의방에서난다염헤누어잇는 그의적은아들「덕」이는 월월떤다 새색기처름떤다 그는 올해 열다섯살보통학교 사년급에지금단닌다

가난한중에서도글이하도모월이되여서 이자식하나만은 어렵게어렵게학교에를보내는것이다

집에는방이둘이잇다건너방에는안해와 그외서진것다 쏫저오딸과둘이서 자든것이다 딸은지난밤에 도망을가고 흔적이업섯다「최서방」도가치이마을에서그림자를감추엇다 그들은 일쭉이부터언약이잇섯든모양이다도망간뒤에 동네사람의말이 그러하엿다 지금건너방에는 안해혼자서달찬에고를배여얍코들누엇이

집은부엌서지모다삼간이다 이집은삼년전에「첨지」가제손으로지은집이다

마을앞독두덕을그는치웟다돌을달이넘도록 나날이 져다가압시내방천을 싸앗다그러고 조고만한터가생것다 거긔다가 집을세웟든것이다 이산저산으로 다다니면서 재목을구하엿다 제손으로다듬엇다

기동을세웟다년륙을노앗다흙을발넛다 집은되엿다 모다제손이엇섯다 그러를 허락해준것은 구장이엇다.터人갑보담 제품삭이만흔것은그는모른다

동네의방천을그는하엿다 가작가난한자가 동네를 위하아봉사를하엿다 그래나 그는자긔의러를얻기위하야서한일이라그래도 제가만흔리의을보줄안다

그로서구덩을거역하지못한다

방안은솝고어둡다키저은첨지가발을뻣우려면 잘만은하다 그는서지는못한다바로서면천정에닷는다바닥에는짚흙을쌀엇다그우에덕석을피엿다

벽은흰흙으로밝넛다밤에도힐ㅅ금하게보인다신ㅅ골삽다가둔집신 헌누덕이가든것이 어수선하게걸니어잇다고기거룩등人불이아롬아롬하게색박이면서한편구석에노히어잇다「첨지」는누어잇다

잠이들엇는지알는소리는들니지안는다 아들「덕」이는 불밋헤 쏘구려고안자서래일의숙데를쓰고잇다

눈

金岸曙

「하얀눈이하도만히 내려길내
손바박에한송이를밧앗지요
해드니웬걸이오無心도합듸다
눈은녹아서손바다만차집되다
嘆息하든女子의말어생각남니
다

어린이소식

신막소년활동 빈민에게쌀을주어

성의선신막역전 긔독교소년회(京義線新幕驛前基督敎少年會)에는추운겨울에먹을것이업고입을것이업서서빈민을위하여그들에게 한되쌀과헌벗옷이라도 주어 일시라도 위안을하겟다는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즘에사나운눈바람을무릅쓰고어린이들이모혀더활동한결과일반유지의뜨거운동정을 바다 모힌돈ㅅ십여원으로소미를사서극빈자이백한명에게분배하엿다고합니다(신막)

강화소년긔념식

지난일월이일에강화 소년회(江華少年會)에서는동지합일학교대강내에서일반유지를 초청하야 동회창립 오주년긔념식(創立五週年紀念式)을거행하엿다고합니다(강화)

광주소년임총

광주(光州)소년회에서는 지난일일오후팔시부터 동회관내에서임시총회를 개최하엿다고합니다(광주)

新刊紹介

紹介를願하는册子는二册식으로보내주시오

▲어린이(一月號)童話、새해첫아츰에少年들에게여러先生任에말쓸少年少女의一讀할만한것이滿載定價金十五錢振替京城八一○六番京城府慶雲洞八十八番地開闢社

▲近代之偉人(崔鳳則著)近代世界各國에偉人傳定價金六十錢振替京城八一一六番京城府竹添町二丁目一番地廣學書舖

▲啓明(一月號)朝鮮學의必要、衣裳의哲理、白頭山志、自己主張의美化、洪吉童傳定價二十錢京城仁寺洞一五二番地啓明俱樂部

▲眞生(新年號)競走場의勝利는行爲로實現하는生命線外數十種定價金十錢振替京城一七六八番京城府蓮池洞一三八番地基督靑年勉勵會朝鮮聯合會

▲아희생활(新世界童話童謠號)十大世界童話世界名作童話十種外 少年少女讀物이滿載價金拾錢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京城府紅把洞十五番地아희생활社

▲別乾坤(新年號)朝鮮開化當年事件의回顧、孫文이死線을넘드이야기、맛나보기前과맛나본後五六名、各新聞社會部記者苦心談、變裝記者暗夜探査、珍職業展覽會、女性欄外 가지가지定價金五拾錢振替京城八一〇六番京城府慶雲洞八十八番地開闢社

허생전(六)

집사진변

一、길에나서니

二、주서너본돕시

三、돌쇠를물니치고

四、허생원이장안갑부가누구냐고

事業成功者列傳 (七)

行商으로着手하야 十餘萬圓大資本

商人을賤視下待함도不拘하고 三十年間繼續이今日에는成功

大邱 金弘祖氏

商業成功家

◇大邱의名物이라면누구나大邱의藥令市를想像할것이며 大邱의藥令市를想像하면 누구나金弘祖氏의藥房을想像할만큼 그의 일홈이놉흐다 大邱藥令市의가장繁盛한때에는 每日數百人이來往하는 有名한漢藥房이그것이니 藥種商으로서는大邱에서第一繁昌하고 京鄕各地에업는데라 그일홈은 每日販賣한 賣上高만하여도 數千圓以上에 達하야가엇다 藥業界에 잇서서는 勿論이어니와 大邱의經濟界에도 업서서 아니될만한 큰 세력을가졋다함은 이미世評이 잇는터이다

◇그러면 이商店의經營者인金弘祖氏는 지금까지어떠한經路를밟앗스며 어떠한처지로서오늘의成功하엿는가 여긔에도여간찬은苦心과 여간찬은努力이잇섯슴은勿論이려니와 무엇보담도氏로하여금 오늘에잇게한것은「信用」이라는 偉大한戰術을 가젓기때문이라한다 氏는故鄕이開城으로지금부터 卅五年前에大邱에와서 南城町에적은資本으로서人蔘行商을하엿다 그때의大邱商業界란참으로 말못할形便에잇섯슬뿐만 아니라그것만하여도 三十餘年前의녯날이만큼 大邱에서는偏僻의風이濃厚하야 商業界에 從事하는사람을 賤視하고下待하엿는關係로된만한사람이면 商業界에발을녓치아니하엿다 이때에잇서氏는開城人인만큼 商業에대한智識이풍부하엿슬뿐만 아니라商業界의人物을 賤視하고下待하는大邱의 괴풍에크게분개하야이러난것이엇다 그러나第一重要한것은 資本이니 이때부터氏의信用을 인정한사람은氏에게자본을주어 장차에큰긔대를가지고活動의길을 여러주엇다

◇活動의經路를잡은氏는 人蔘行商을하다가지금부터 十二年前부터는 藥種商을 開業한것으로 그當時에는 勿論藥業界의許可 가튼것도 업섯슬뿐不過三四百圓의 資本金으로 시작한것이니까 보잘것이오 그존재까지 科目에 뜨우지못할 정도엿다 그러니 開業당시의

商業武器는信用

◇信用일흔일이업소 金弘祖氏談

經歷이라니 별것이 업습니다만 구태여말슴하라면 至今까지 三十年이넘도록 大邱에서 장사를해왓지만 아직남에게金錢關係에나 賣買上에 不信用하다는말은 들어보지못하엿습니다 이것이 자랑이라면 자랑이될것도잇습니다만 나에게는이 「信用」이라는것이 장사하는데에 唯一한 武器인으로 나로서는 반다시 가저야 할것일줄로생각합니다 成功이라니 世上사람들의 엇측이지 기실남의자본으로서 겨우 그날그날의 收支를맛초아나갈뿐으로아모것도 이럿타할 것은업는形便입니다하고 信用으로서自己의 오늘이잇는것을暗示한氏에게는

(寫眞 金弘祖氏와그의藥房)

하야일반의만흔긔대와 촉망을 가젓다고한다 그만큼 少하여도全國的으로 有名한資本金數十萬圓以上의巨商이라 함은大邱에잇서 三尺童子라도일컷는다고한다

「成功者列傳」投稿繼續受理 (寫眞添付)

◇投稿者◇ 大邱 SKC

◇薄謝◇ 本報購讀券 二個月分

景品附聯合販賣

◇盛況裡에開始式

商繁會主催、本支局後援

大邱商繁會主催와本報大邱支局後援의歲末景品附大發賣는紫報와如히陰十二月一日부터開始하엿는데開始初日은午前十時부터二十五加盟店의旗를列하야樂隊를先頭로府內를無漏히一巡하야자못氣勢를돕게엇는바店旗가모다大小의差가업는赤地의白字임으로이날大邱의거리에는完然赤大地의感을與하야商界추前의壯觀을呈하엿는바 따라서加盟店은勿論全府를通해서 一大活氣를帶하야各店은緊張한가운데來客의殺應에加一層親切히하는樣과買客이또한넘치는興味를가지고사日人側에서는벌서부터잇서온일이것만처어도우리라는點에서別다른늣김을與하엿다더라(大邱)

一層發展을期圖

商繁會長談

別項景品附大發賣의開始日을當하야그동안全心力을기우려애써나오든商繁會長許智氏는말하되 「다른사람은 벌서부터잇서온일이것이나우리로는처음되는일이그다지자랑할거리도못되지만은何如間비록적다하여도一般이여긔對한理解를잘가지게되자商業者도또한그러한方法을取해야되겟다는데外지생각들이合해저서從來보담氣分이활작밧귀기始作하엿다는것만은깃분일이라안흘수업슴니다今般大發賣를一新紀元을삼아우리商繁會가우리商界의代表機關이되야압흐로보담더發展을期하기에다가치굿센團結이잇서야할것이외다아모러나有終의美를收하기에全力을다할터이라」

汽熱式乾繭場

端川에서新築

咸南端川郡農會에서는從來에設置하엿든管內五個所의乾繭場中二個所는鐵管火熱式이나其他三個所는在來의炭火式이며衆하야逐年增加하는產繭額에作하야乾繭場의狹隘함을痛切히늣기게되야每年共同販賣의時는大困難을겪을뿐만아니라모처럼優良한繭을數日동안積置하엿다가乾繭에附하는關係上品質의惡變하는弊가만흠을깁히遺憾으로生覺하야同郡農會에서는此의應急手段으로本郡產繭의聲價를準揚하기爲하야來春早早工事에着手할豫定인바同乾繭場은朝鮮內에는最新式今村式인바또乾繭場이竣功되는날에는端川郡產繭의品質은훨씬만치優良한聲價를生産하게되리라더라(端川)

新塘勞夜好況

慶北達

城郡玉浦面新塘勞働夜學은當地有志의熱誠으로設立되지四個星霜이란적지안은歲月을지나왓다는데無産兒童敎育을切實히늣긴當地靑年會에서一府奮鬪하야該會員의活動으로어든義捐金과該會의소財產을苦學에投入하야喜暴한敎化外지新樂하엿스며將來의維持外지充分히樹立하엿다는데將來가매우有望하다더라(花園)

畿湖地方

◆論山鷄友會月例會 論山鷄友睦會에서는지난三日午後七時부터旭町禮拜堂에서月例會를副會長片順甲氏의司會下에開하고諸般事項을圓滿히決議한後同十一時頃에散會하엿다하며前日에會費消費者인尹某를告訴키로萬場一致로可決한後會費未納者는除名키로하고決議된事項은如左하다더라(論山)

◇決議

一、會費에關한件

一、會員禁酒에關한件

一、新任員定選에關한件

一、會費未納會員除名에關한件

一、鄕補會開催에關한件

禮拜못헤 一場風波

「病을祈禱로治療함은迷信」

某演士의感想談問題로

城津基督敎靑年會에서는去一日午後八時에城津禮拜堂에서新年禮拜를徐有珍氏의司會下에開催하고諸演士가熱熱한新年所感을말하다가演士鄭元福氏가『靑年의본敎會』란題目下에『두러』의宗敎改革以後基督敎變遷史와現下朝鮮基督敎會牧師長老等의無精神으로西洋牧師의奴隸的生活과밋이에맛치는敎會의弊害를一一허力說한後다시話頭를곳처社會進化의必然的法則에依하야科學的社會의到來를말하고이어서『배곱흔者에게는 밥이必要하고病든者에게는藥이必要하것거날우리敎會內에서는祈禱로서病을治療코저함은一種의迷信이라고高喊처자』敎人中으로演士가聖經을일지못함으로資格이업다하야한참동안質問의聲이連發하다가解決策으로演士가謝過하면繼續하라고一部敎人은要求하엿스나演士가不聽함으로場內는한참李氣가險惡하야殺風景이다가演士의私宅에往訪質問키로하고兇지所感은畢하엿다더라(端川)

東北地方

◇佛敎敎理講習 安邊釋王寺에서는今般佛敎에對한敎理를硏究키爲하야慶北聞慶郡大乘寺朴鏡應氏를招待하야同寺眞歡堂內에서佛敎專門講習學院을開催하고一般에게敎授한다는데學生은三十餘名이라더라(新高山)

◇城津基督敎靑年會에서는新年祝賀會를一月一日午後七時旭町禮拜堂에서會長徐有珍氏司會下에滋味잇는獨唱과歌劇等으로新年을마지하는데만흔感興을주엇고마음으로로敎信男女學校職員과會員中으로新年에對한感想談으로簡單히講演會外지잇서一般에게새로운늣김을준後同十一時에無事히散會하엿다더라(城津)

一、會長留任問題에關한件

一、會員就職에關한件

一、反動分子調査에關한件

◇地方短評◇

◇義州● 內面多智洞에는區長하나해본다고投書자흥이宏壯한데엇던사람은이것을狗偈投鼠(區長投書)갓다고批評하엿스나적어도『區長』을하라는사람에게넘어도至毒한評?

◇錦山● 崔姓女가『올케』를서번채나팔어먹은것부터『올케』못된일인데거긔다가『올케』사간사람이도로물너달나는것은더옥『올케』못되는일

◇店村● 當地禮拜堂에서 엇던靑年의講道하는말을들으면『예수께서는떡七個를가지고四千名을돈아주고도오히려七광주리가남엇다』고하엿다이講道를들은사람은맷칠밥안먹어도견데겟군!

白頭山觀叅 (七六)

崔南善

바람이불고 布帳이한겹날리는곳에 白冠白袍에 葡萄枝와小鼓를 兩手에난화드은 埃及人이 나서면서 祭床압헤노흔『파피루쓰』紙上의 神聖文字가歷歷히널허진다 그네의 太陽神에對한雄麗한讚美歌의 一節이다

東녁에잇서서는『레』(Ra)、西녁에잇서서는『아둠』(Atum)인당신을讚美할진저 오며 당신은올라오고 당신은올라빗나도다 당신은빗나고 당신은華麗한冠冕을쓰시고 당신은諸神의王이시며모든天의王이시다 우에잇는黑宿과 알에잇는人物을創造한이가당신이시며太初의날로부터 항상계셔오는唯一의神은 당신이시로다 당신은陸地를만드섯고 또國民外지도지으섯도다 당신은우리들에게 水外지도固厚한陸地外지도 『나일』江外지도 또바다外지도주섯스며 海에잇는者에게生命을주섯도다 사람과地界등을聯結하시고 목목보매書記生『아니』의『오시리쓰』『운』『네펠』에올리는노래가나타나고『문득보매『켄나』의『라』에올리는노래가떨너린다

『諸王의王、諸主의主、諸元首의元首로 『누트』(Nut)의胎로서나와서 이世上과『아겔트』와를 攝理하는당신을 시방敬禮합니다……天上에서는美와人間에서는力과 地府에서는勝利를엇게하아주소서』

『어허아름다웁고 景仰밧는 兒여 당신이올라오면男이고女이고 다살게되는도다 萬國의人民들은 당신의속에서깃버하고 『안누』의靈魂들은 당신에게讚祝하는노래를부르는도다』

× × × × ×

바람이다시불고 布帳이한겹또날리는곳에 『모쉬』의 손에긔록된創世紀가 가죽에쎈猶太人의손에밧들려잇다

『太初에 하누님이天地를創造하시다 따이混沌하고空虛하야黑暗이물우에잇는지라 하누님의神이水面에 運行하시더라 하누님이빗치잇스라하시니빗치잇거늘 빗츨보시고 善하녀이샤 밝고어두움을分別하야 밝은것을낫이라하시고어두운것을 밤이라하시다 저녁이되며 아츰이되니第一日이러라』

문득나오는것은 列子의『有太易、有太初、有太始、有太素、太易未見氣也、太初者氣之始也、太始者形之始也、太素者質之始也、氣形質具而未相離、故曰渾淪、渾淪者言萬物相渾淪而未相離也、視之不見、聽之不聞、循之不得、故曰易也、易無形埒、易變而爲一、一變而爲七、七變而爲九、九變者究也、乃復變而爲一、一者形變之始也、淸輕者上爲天、濁重者下爲地、冲和氣者爲人、故天地含精、萬物化生(天瑞)』

문득나오는것은『편』人의國民史詩『갈레발라』의『軟泥의 中에서도 그들은결단나지아니하고 그破片은水中에서도 업서지지아니하니라 그무엇인가 奇異한變化가낫어나서 그破片이죄다훌륭하게生長하니라 그니지러진卵의 맨알에의破片으로서 固厚한地球가成立되고 그니지러진卵의 맨우의破片으로서 天의蒼穹이 浮上하니라 그卵黃의上部로서 그저는赫赫한太陽의빗치나오고 卵白의上部로서는 맑되맑은月輪이올라오니라 卵의中에잇든얼룩진것들은 그저는天에잇서서星辰이되니라 좀경으무른름하든것은 空中에가서雲霞처럼떠돌아다니니라』

巡廻探訪 (九百八十九)

昔時의繁榮地가 寂寞한農村

社會團體는絶跡

楊州 一記者 (8)

◇交通 은京城元山間直通하는一等道路가貫中하가 荷馬車의來往이 頗히複雜한狀態이며一方으로는 京成線의鐵道가貫通된바 議政府、德亭里、東豆川等의 停驛이有하야 穀類、石炭等附이無時로出驛되야 荷車가二三〇個와 牛馬車八八二個로晝夜運搬에 貨物關係이頻繁하다 交通이頻繁하다

◇金融 機關은組合이二個所로楊州、金谷、東豆川에 有한바組合員總數는二、〇六四人이요出資金이四一、五〇四圓인바預金이一九二、八二〇圓이요貸出口數가二、一〇〇口에金額이二九七、八七五圓이라하며 個人의營業으로는 朝鮮人이二〇人이요 日本人이五人이라는데朝鮮人의資金은 七六、六五〇圓이오 日本人은一一、一〇〇圓이라稱한다 此는個人에 關한詳細한數字는知키難하나營業資金을以上의三組合과個人間에金融을融通하나 此以外에京城으로부터 各銀行會社와各富豪의 巨額資金을融通하는 便利가有하다

郵便所는議政府、金谷、東豆川의三個所가有한바 十二年度末現在로朝鮮人의貯金은五、一二八人에金額이一〇、九九八圓이오 日本人이四六〇人에 金額이二五、二六五圓이라는바 他郡에比하야 貯蓄成績이頗히不良하다하겟스니 其原因은農村에貯蓄思想이 아주鼓吹치못한所以와 勞働者의貧寒한外닭으로成績이不振하다한다

◇次回는義城◇

名勝古蹟

◇道峯 本郡西南間에잇스니 卽三角山과蜿蜒된山脈이라 標緲한石勢로 劉歸을洗出한듯하고 其上에望月寺란 적은庵子가有하니春秋節에探勝客이 此寺에來하야 望月하는곳으로著名하니十五夜의明月이 東天에서初上할時는 恰似히寺의階下에서上來함과如함으로 望月寺라稱한다

◇水落山 은東南間에聳立한바 參差한石勢가恒常瀑布가流함과如함으로 水落이라稱하다 此山內에石林寺、內院、鶴林寺等은 有名한寺刹로 景槪가絶勝하야 春夏間에觀客이多하다한다

◇逍遙山 은郡의東北에在하니 東豆川驛에約一里假고 背後에는玉女峯의森嚴한石峯이有하고 山絶頂에는金宋窟이란有名한藥水가有하야 京城學生의修學旅行과 遊覽客의探勝은一日이라도暫隙이업시 連絡不絶한다

◇東九陵 은上記함과如히李太祖陵以下 九陵이잇슴으로因하야 東九陵이라里名을作한바 拜觀者가春夏間에多하다한다

◇洪陵 은金谷里오잇는李朝高宗皇帝의陵寢이시며 純宗皇帝의裕陵도 洪陵抜字內에잇는바 拜觀者가多하다한다

社會團體

社會團體는筆者가孤陋寡聞한所致로各細胞團體의著名한者는別無하나殖產興業을目的한金梧靑年會가有한바主要人物은尹元世氏라하며議政府에少年斥候隊가有하니若干의少年으로組織된바將來에有望한事業을豫期하는바이다 元來楊州郡은古今外지文盲에退治가못되야 農業을主로하고 勞働을副業으로한關係上思想團體는少한듯不啻라若干의有志가잇다하야도 京城에集中함으로鄕村部落에는特別한施設이別無함으로 一大遺憾으로思하는바이다

寫眞說明 道峯의遠景

◇永同◇

忠北永同邑內 株式會社 共榮社 職員一同

永同面事務所 職員一同

永同郡上村面勿閑里 三道峯製炭事務所 金錫根

上村面事務所 職員一同

永同郡黃澗面南城里 金富根

黃澗驛前 穀物商 陳孟洙

黃澗驛前 司法代書人 閔泳祜

黃澗驛前 李元準

黃澗驛前 旅人宿 孫光文

黃澗面南城里 區長 金興煥

秋風嶺驛前 ㊤合同運送店主 南鳳周

黃澗驛前 上村面林山里 穀物商 宋錫九

黃澗驛前 高商商店主 全大源

黃澗驛前 黃澗金融組合

黃澗驛前 精米業 鄭泰連

黃澗驛前 醫生 閔泳默

京釜線伊院驛前 商業 姜在瑚

黃澗驛前 海産貿易商 金周殷

黃澗驛前 旅館業 文顯烈

秋風嶺驛前 合同運送店主 蔡章植

黃澗驛前 ○商店 裵龍漢

黃澗驛前 ㊉號商 朴鳳煥

黃澗驛前 黃澗公立普通學校

黃澗驛前 矢浦上運送店及旅人宿業 崔秉權

梅谷面事務所 職員一同

伊院驛前 姜永泰

沃川郡伊內面事務所 面長 姜在琦

伊院驛前 李俊宰

沃川驛前 朝鮮人旅館主 閔丙河

京釜線永同驛前 東亞日報永同支局長 李相夏

永同驛前 穀物商 李揆祥

永同市場 大成木工場 金榮寬

永同驛前 ㊀永同運輸組

永同驛前 茂朱自動車部 主任 金周桓 電話三四番

永同驛前 同陞權

永同驛前 平壤旅館主 李明福

永同驛前 永信堂印刷所 朴濟權

永同面主谷里 徐丙玉

永同面會洞里 鄭哲永

永同面會洞里 宋在復

永同面會洞里 李揆元

深川驛前 ㊉運送部主 金順玉

深川面事務所 職員一同

龍山面千作里 鄭寬洛

龍山面市場 李國厚

龍山面市場 穀物商 孫濬哲 孫濬國

陽山面松湖里 李俊淵

永同郡陽山公立普通學校長 時重岩尾

楊江面雙岩里 朴喜泰

楊江面雙岩里 朴喜豊

楊江面佳洞里 鄭雲淑

永同郡黃金面事務所 職員一同

黃金面泉龍里 鄭煥秀

秋風嶺驛前 鄭相悅

永同郡龍化面鳳林里 李源行

永同郡陽山面事務所 會計員 金會福

永同郡陽山面元塘里 權相弼

忠北永同邑內 司法代書人 徐光準

忠北永同金融組合 理事 小林英雅

忠北永同邑內 天成泰支店

忠北永同邑內 穀物商 孫在厦

永同面芙蓉里 穀物商 李東基

忠北永同邑內 魚物商 林重星

永同邑院醫 醫生 黃寅秀

永同面事務所 職員一同

鶴山面事務所 職員一同

永同郡鶴山面鵲山里 司法代書人 呂禹鉉

永同郡鶴山面碑溪里 金泰憲

忠北永同市場 義和永商店

永同邑市場通 大安醫院醫師 安秉三

永同驛前茂朱自動車部 金東桓

忠北永同邑內 代書業 張仁圭

永同驛前 司法代書人 朴喜壽

永同驛前 行政司法代書人 孫在益

永同驛前 測量業 金商億

永同驛前 代書業 朴喜瓊

永同面芙蓉里 朴昌緖

永同市場 穀物商 韓成致

永同郡鶴山面鵲山里 穀物商 崔永斗

◇利川◇

長湖院 長湖醫院 尹基東

長湖院長樂館 料理業主 吳明煥 藝妓 朴芙蓉 金珊瑚 明仙 鄭彩瓊 朴錦紅 崔玉蓮 金碧桃 崔月色

支那料理 長湖院慶和館 鄭本貴

長湖院 泰華商店 趙慶華 趙在新 金在獻

長湖院 趙聖達

長湖院 內外金物並護謨靴部散賣商 劉重植商店

長湖院 長湖院洋服店 朴瀅善 趙日郞

長湖院 長湖院勞友會 會長 李圭泰

長湖院 大成社 金融業 共益組合 綿叺業 長湖院商工協會

利川淸美面豊恩里 李丙稷

陰城郡 甘谷普通學校 職員一同

長湖院 昌信堂藥舖 崔完基

長湖院 漢星自轉車舖 李漢星

長湖院淸溪面 職員一同

長湖院 泰華精米所 金日煥 趙慶華

長湖院 長院農場

長湖院 洪昌成鐵工場

長湖院 李鳳雨

長湖院 請負業 黃潤秀

長湖院 덕새商店 李憲來

利川邑內 綢緞布木 李龍周 電話一一番

利川邑內 綢緞布木陶磁器商 丁奎七

利川邑內 雜貨布木穀物類 吉永均商店 電話五番

利川邑內 穀物貿易商 李興男 金東連 電話三六番

利川邑內 漢信自轉車商店 趙相厚

利川邑內 司法代書所 南天熙 電話三九番

利川邑內 穀物貿易商 余東秀

利川邑內 利川寫眞館 任傾宰

利川邑內 癸成堂藥房 徐昌紀

利川邑內 穀物商 鄭[illegible]熙 電話二三番

利川邑內 醫生 趙宗鎬

利川邑內 穀物貿易商 秋東鎬 電振三七番

利川邑內 雜貨商 曺憲煥 電話一六番

利川邑內 穀物商 徐應九

利川邑內 雜穀肥料商 李[illegible]載

長湖院 青年會 運動團 曉泉少年會

長湖院 朝鮮日報支局 支局長 丁忠燮 總務 韓弼洙 記者 安丙玉 寫眞班記者 崔鍾碩

長湖院 金景圭

陰城郡甘谷面 職員一同

長湖院 勞働夜學講習所所長 黃永秀

長湖院 得昇商店 金英伯

長湖院 衛生理髮館

長湖院 材木商 金榮國

長湖院 允興自轉車舖 金允錫

長湖院 各種織物商 尹泰興

長湖院 興產組合支配人 盧秉翼

長湖院 相和商店

長湖院 盧承元

長湖院 李昌雨

長湖院 京南旅館

◇永興◇

永興邑內 明紬取扱專門商 永興紬貿易組合 趙鳳禧 尹金龍

永興郡長興面院下里 崔龍金

永興邑內 司法代書人 金正禧 司法代書人 朴成局 司法代書人 金秉極 李杓 金昌壎 黃命錫

永興邑內 崔泰旭

永興郡永興邑內 興盛菓子店 秦秉善

永興邑內 三省堂 金圭晃

馬場驛前 新豊釀造所

馬場驛前 林鍾賢

馬場驛前 運送部 林鍾稷

馬場驛前 新豊運送部 朴允漢 鄭榮灝

永興郡 洪仁面所一同

永興郡順寧面新亭里 禹宗林

永興郡長興面院下里 雜貨商 朴用進

永興郡長興面別東里 劉泳鍾

永興郡 長興面職員一同

永興郡仁興面南陽里 李麟浩

永興郡長興面院下里 各種農具鐵工製造所 李昌實

永興邑內 고무靴卸賣及 京城田丑特約販賣店 金炳觀

永興邑內 金鳳淵

永興邑內 金成理髮舘 朴允在

永興驛前 東亞運輸株式會社 昝鎭堯

永興驛前 富士生命保險株式會社外務監察 朴義杜

永興邑內 成一館 朴容基

永興邑內 金成旅館 金承璧

永興邑內都井里 富興館 鄭賞和

永興邑 永興郵便所長

永興邑 永興警察署

永興邑 永興郡廳

永興郡 宣興面所一同

永興邑內 陶器、化粧品、帽子文房具品類 北鮮雜貨店 金炳燮 獨孤龍

永興邑內 文房具、洋靴一式 日用雜貨 永一商店 主 朴載緖

永興邑內 申元實

永興邑內 海陸物產綢緞布木 張有昇

永興邑內 綢緞布木 張寅弘商店

永興邑內 綢緞布木 李寬用

永興驛前 日本輸出牛產客主 李亨淳

永興邑內 李貞任

永興郡長興面院下里 果樹園 嚴秉折

永興郡順寧面龍山里 朱性喆

永興郡 仁興面所一同

永興郡順寧面新亭里 朴昌駿

永興郡順寧面新亭里 朴瓚旭

◇禮山◇

禮山郡邑內 金曜會

禮山邑內 順天醫院 李鍾大

禮山邑內 李完鍾

禮山邑內 錦一養蜂園 電話一〇四 振替京城九九四五

禮山邑內 御菓子 三松堂 主 姜駿遠 電話一〇三

禮山邑內 李庠圭

禮山邑內 忠南製絲會社長 成樂奎

禮山邑內 金星權

禮山邑內 山禮商會

禮山邑內 崔世鎭

禮山邑內 忠南商業株式會社取締役 李鍾悳

禮山市 朴弼來商術院

禮山市 金顯相

禮山市 振興共助組合

禮山市 農具鐵物店 尹昌奎

禮山市 高等理髮館 主 方珠鉉

禮山市 고무靴專門 主 洪在喆

禮山市 綢緞布木店 主 黃鶴柱

禮山市 綢緞布木店主 金興國

禮山市 中鉉商

禮山市 株式會社 湖西銀行

禮山市 金昌堂印刷所

禮山市 海東醫院 醫師 吳逸泳

禮山市 飲料製造元 龍華洋行 主 金忠仁

禮山市 自轉車店 申完俊

禮山市 米穀商 金相喜

禮山醫院醫生 丁奎憲

京南線禮山驛前 忠南製絲株式會社

京南線禮山驛前 忠南商業株式會社

京南線禮山驛前 穀物貿易商 李玖永

京南線禮山驛前 ⼛山サ運送店 電話一〇八

京南線禮山驛前 穀物貿易商 朴奎瓚

京南線禮山驛前 禮山精米所 朴成來

京南線禮山驛前 禮山穀物檢查所 張基敦 李鎔憲

京南線禮山驛前 穀物貿易及運送業 成觀永 電話一二〇

禮山郡新岩面 面長 魚在乘

禮山郡新岩面 會計員 金晩益

禮山郡新岩面 書記 朴順煥

禮山郡新岩面 書記 洪性俊

禮山郡新岩面 山林監視 鄭宅謨

禮山郡新岩面 書記 李相麟

禮山郡大述面 李珪

禮山郡大述面 山林監視 金佐洙

禮山郡大述面 書記 金炳植

禮山郡大述面 書記 文完敎

禮山郡大述面 書記 崔中彪

禮山郡大述面 會計員 金昌鉉

禮山郡新陽面柿村里 洪愛琦